

# 광주시, 고졸 인재 일자리 위해 뚝다

### 시교육청 공동 이달말까지 에너지특화기업 등 18개사 방문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설명...지역인재 채용 요청 등

광주시가 고졸인재 취업처 발굴을 위한 기업현장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고졸 인재의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광주형일자리·명품강소기업·에너지특화기업 등 지역기업 18개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공략 대상으로 명품강소기업인 ㈜지용금속, ㈜대우에이텍, ㈜미래엔지, ㈜비에이에너지, 대경에이티, ㈜월드플러스전자, ㈜효광, ㈜무등기업평동, 광주형일자리 기업인 와이에스피, 대웅에스앤티, 삼성스텐레스상공, ㈜현대하이텍, ㈜대우홀딩스, ㈜디에이치글로벌, ㈜씨엔텍, 세방전지, 에너지특화

기업인 남도금형, ㈜아이티스퀘어 등이다.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기업방문은 지난 10월 직업계고 인재육성을 위해 광주시 교육·일자리 관련 5개 부서(인재육성과, 노동정책관, 창업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와 시교육청, 일자리 관련 기관이 참석한 협력회의 후속 활동이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지역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취업동아리 및 현장실습 등 기업체 참여 및 지역 고졸 인재 채용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의 지

역 정착을 높여 나가기 위해 교육청과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과 협력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60억원(국비 30억, 시비 10억, 교육청 20억)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 기관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호남대 등 4개 대학, 전남공고 등 6개 직업계고, 경제유관기관 등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선취업(기업)-후학습(대학) 성장 경로 마련 등이 핵심 과제다.

김선자 광주시 인재육성과장은 "이번 방문은 고졸인재와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수요 및 채용 계획을 파악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드론 체험' 전남대 테크페어 8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테크페어가 컨벤션홀과 용지관일원에서 열렸다.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드론부스가 마련된 용지관 광장에 드론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대 테크페어산학협력 다양화로 지역사회와의 산·학·연·관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개방·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전남 관광객 유치 이끄는 '주말 농부장터'

### 농업박물관 올 8차례 매회 1000여명 몰려... '지역 상생 모델' 평가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주말 농부장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한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면서 농업박물관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역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싼 가격에 싱싱한 과일과 농산물을 살 수 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박물관'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올해 봄철(4-5월) 4회, 가을철(9-11월) 4회 등 모두 8차례 '주말 농부장터'를 열었다.

농부장터는 박물관 진입로에 농산물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잡곡류와 버섯, 꿀, 고구마, 무화과, 대봉감, 사인머스켓 등 다양한 농산물과 제철 과일을 담고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면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농부장터와 연계한 행사로 승례대 조립하기,

에코백 꾸미기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무료 체험 행사를 하고 장터 방문객에게는 팽튀기와 풍선 등 사은품에 소셜미디어 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장터 방문객이 매회 1000명 이상이 몰리며 농업박물관과 영산호관광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영호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유물 전시와 단편적인 체험행사만으로 박물관의 관람객을 유치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시대성을 반영하는 콘텐츠와 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완하는 특화된 콘텐츠로 새롭고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개발해 농업박물관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산하기관 기강 해이 심각”

### 이재태 도의원 “생물의약센터, 인사 불만 직원이 흥기 들고 난입” 박문옥 도의원 “민생사법경찰 4명에 불과...도내 안전감찰 소홀”

####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인사 업무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흥기를 들고 사무실에 난입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등 전남도 산하기관의 공직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 불만 있다고 흥기로 위협?”=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태(더민주·나주3) 의원은 이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 산하 ‘생물의약센터’에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흥기를 들고 간부 회의 자리에 들어가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고, ‘해양바이오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의 물품 구매 계약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생물의약센터의 경우 지난 7월 28일 업무보고 회의 중 특정인의 인사 출대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흥기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위협했지만 경찰 신고는커녕, 징계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도 노동청이 센터 고위 간부의 연구원들에 대한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지난 2월 혐의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전남도의 후속 조치의 진행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센터 고위 간부의 특정 업체와의 물품 구매 강요 등에 대한 노동청 조사 뒤에도 전남

도의 조사와 징계, 처벌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고 질타했다.

◇“안전분야 감찰 소홀한 것 아니냐”=박문옥(더민주·목포 3) 의원은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안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남도내 안전감찰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식품, 환경, 보건,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전남에는 소방(159명), 어업감독(93명), 환경(92명)과 의약품, 농약·비료, 긴급 안전점검 등 24개 분야에서 700명(도 194, 시·군 506)의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소방본부 159명을 제외한 35명 중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농약·비료, 방문판매 분야 단속과 수사를 벌이는 민생사법경찰은 4명에 불과한데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한 지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검찰 송치실적을 보면 1027건 중 자동차 무의행 단속이 622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에서는 식품위생 13건, 공중위생·원산지 위반 각각 2건씩으로 17건이 전부”라고 실질적 단속을 위한 인원 확대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관광 취약계층에 여행 경비·동행인 지원

### 전남도, 다음달 중순까지 참가자 모집

전남도가 전남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체(휠체어 이용자)·시각·발달·청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당일 여행상품으로 15만원 한도에서, 저소득 장애인 경우 가족, 지인, 활동 보조인 등 동행인 여

행경비 15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시·군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사에서 식사 2회, 유료 체험 관광, 관광지 관람을 포함해 하루 동안 운영하며 여행 기간은 12월 중순까지다.

참여를 바라는 전남도민은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거나 시·군 관광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모집과 운영 시기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여행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과 신안군의 경우 모집이 모두 마감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화순국제백신포럼’ 10일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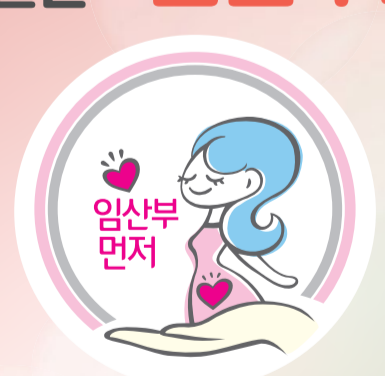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의학·백신 포럼인 ‘2022 화순국제백신포럼’이 10일부터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다. ‘더 공평한 세상을 위한 백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국제백신포럼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1000여 명의 국내외 백신 전문가와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백신 불평등 해소와 대한민국 백신산업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조태준 개발전략실장과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의 필립 알렉산더 길버트 수석 등 국내외 저명한 7명의 연사가 참여해 세계 백신 공급망 사슬에서 대한민국 백신 산업의 현주소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임산부 배려 캠페인 •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도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음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